

글로벌 백신 시장 및 국내 백신 수출입 현황

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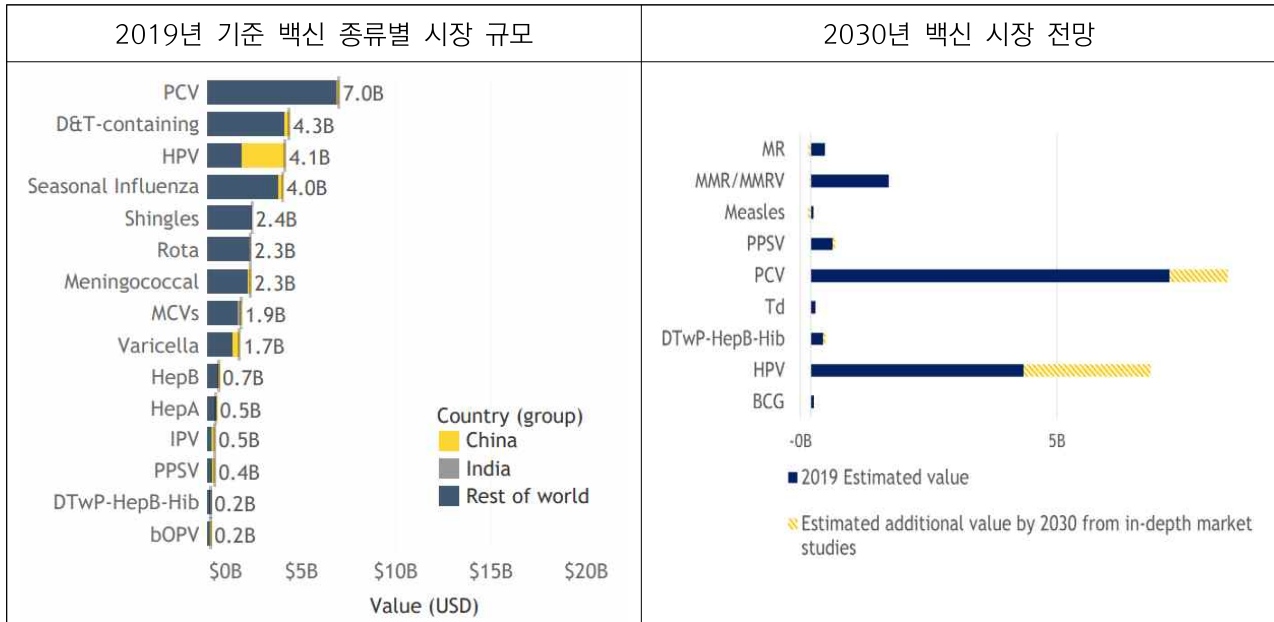
- ◇ 2020년 12월 WHO 발간자료에 따르면,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백신 시장은 330억 달러 규모로 GSK, Pfizer, Merck, Sanofi 등 4개사가 전체 백신 시장의 89% 점유
 - 2019년 기준 폐렴구균, 디프테리아/파상풍, 자궁경부암, 계절독감 등의 순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으며, 향후 2030년까지 폐렴구균 및 자궁경부암 백신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
- ◇ 2022년 1월 헬스케어 시장분석기관인 airfinity 자료에 따르면, 2021년 코로나19 백신 시장은 656억 달러 규모로 비 코로나19 백신 시장인 330억 달러의 약 두배 시장을 형성함.
 - 2021년 코로나19 백신 매출의 약 83%는 화이자/바이오엔텍과 모더나가 차지하였으며, 2022년에도 이들 두개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매출 지속 증가 전망
- ◇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, 한국의 백신 수출입 교역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출보다는 수입 비중이 크고 2021년에는 특히 코로나19 백신 영향으로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함.
 - 한국의 백신 수출은 2020년 1.7억 달러에서 2021년 5.1억 달러로 증가하였고, 수입 또한 2020년 3.4억 달러에서 2021년 23.5억 달러로 급증
 - 2021년 기준 백신 수출은 필리핀 및 호주, 백신 수입은 벨기에 및 미국 순으로 비중이 높음
- ◇ R&D, 인력양성 이외에 국내 백신 산업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획기적 지원안 마련 필요
 - mRNA백신 및 백신 원부자재에 대한 R&D가 진행되었고, 2021년에 백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R&D 세액공제가 추가되었으며, 지난달에는 우리나라가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되는 등 국내 중장기적 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.
 - 코로나19 백신 및 다양한 고부가가치 백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해외기업 인수, 해외기술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할 수 있어, 이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 강구 필요

1. 글로벌 백신 시장 및 주요 플레이어

□ 코로나19 이전의 글로벌 백신 시장¹⁾

- 2019년 기준 글로벌 백신 시장은 330억 달러로 추정되며, 전체 의약품 시장의 2% 차지
 - 지역별로 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백신 시장의 68%는 미국과 유럽이 차지
- 2019년 기준 글로벌 백신 시장은 GSK, Pfizer, Merck, Sanofi 등 4개 기업이 전체시장의 약 89%를 점유(GSK 40%, Pfizer 17%, Merck 17%, Sanofi 15%)
- 종류별로는 폐렴구균백신(PCV)이 70억 달러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였고, 디프테리아 및 파상풍 포함 백신(D&T-containing)이 43억 달러, 자궁경부암백신(HPV) 41억 달러, 계절독감(Seasonal Influenza) 40억 달러 시장을 형성하였음.
 - 그 뒤로 대상포진(Shingles) 24억 달러, 로타(Rota) 23억 달러, 수막구균(Meningococcal) 23억 달러, 홍역포함백신(MCVs) 19억 달러, 수두백신(Varicella)이 17억 달러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.

- 특히, 2030년까지 PCV, HPV 백신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



□ 코로나19 백신 시장²

- 2021년 기준 코로나19 백신 매출은 656억 달러로 2022년에는 29% 증가한 84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.(중국 코로나19 백신은 제외)
- Pfizer/BioNTech과 Moderna의 백신 매출은 2022년에도 큰 폭의 증가세가 전망되며, 다른 백신 기업들도 소폭의 증가세가 전망됨.
 - Pfizer/BioNTech 백신은 2021년에 37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는 42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, Moderna 백신은 2021년 169억 달러에서 2022년 25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 - 얀센백신은 2021년 24억 달러에서 2022년 35억 달러로 증가하고,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7억 달러에서 43억 달러로, 노바백스 백신은 2022년 신규로 46억 달러 매출이 전망됨.

2. 한국의 인체용 백신 수출입 현황³

- 2021년 기준 한국의 백신 수출은 5억 달러, 수입은 23억 달러로 18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.

한국의 백신 최근 5년간 수출입 현황

(단위 : 백만 달러)

년 도	수 출	수 입	무역수지
2021년	519	2,355	-1,836
2020년	173	345	-172
2019년	143	270	-127
2018년	166	273	-107
2017년	183	329	-146

- 그간 한국 백신의 주요 수출국은 남미, 동남아 국가였으나, 2021년에 호주, 네덜란드 등이 포함됨. 이는, 코로나19 백신의 위탁생산 물량 수출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.
 - 특히, 필리핀으로 수출은 2020년 7십만 달러에서 2021년에 1억 7천만 달러로 급증하였으며, 호주의 경우 2021년 9천만 달러가 수출됨.

한국의 백신 수출 상위 5개국 수출현황

(단위 : 백만 달러)

국가명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필리핀	3.5	1.9	1.2	0.7	176.3
호주	0	0.03	0	0.03	91.9
네덜란드	0	0	0	0.5	19.1
페루	16	9	20	12	17.5
베트남	7.8	4.5	5.1	5.3	16.3

- 미국은 한국의 주요 백신 수입국가로 수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, 2021년에는 특히 벨기에 수입이 급증함. 이 또한, 코로나19 백신 수입 물량 급증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.
 - 벨기에 수입은 2020년 4천만 달러에서 2021년 13억 7천만 달러로 급증함.

한국의 백신 수입 상위 5개국 수입현황

(단위 : 백만 달러)

국가명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벨기에	22	24	30	40	1,376
미국	150	120	123	154	629
독일	14	14	8	13	127
스위스	0.01	0.01	0.04	0.07	58
프랑스	56	40	37	41	48

- 〈참고자료〉 1. Global Vaccine Market Report, WHO, 2020.12
 2. COVID-19 Vaccine Revenue forecasts, airfinity, 2022.1.21.
 3. 관세청, 수출입무역통계(unipass.customs.go.kr) 2022.3.3 접근